

깊은 법문 · 친절한 ‘해설’ ... 수행의 지름길

금강경을 사랑한 지안 스님 구마라습 원문풀이 · 관련 설화 가려뽑아



지안 스님 법문
성수 스님 지음 | 김성우 해설
휴먼앤북스 | 1만5000원

‘한국적 선문답’으로 유명한 성수 스님 법문에 해설 달아

가! 불법은 저 건너 산을 보라. 봄이 오면 잎이 나고 가을 오면 낙엽지네. 이 밖에 따로 구하지 말라. 구한 죽고(苦)가 되나니라.

문: 조사(달마)가 서역(西域: 인도)에서 온 뜻은 무엇입니까?

답: 그 뜻을 알고자 하거든 나무나 돌이 말할 때를 기다려라. 진실로 알고자 하는 눈이면 보고 들을 줄 알 것 이며, 허튼 생각으로 묻는다면 부처의 뱃속으로 들어가도 알기 어렵고, 불조(佛祖)가 진대지(盡大地: 대지가 다하도록)에 가득해도 모를 것이니, 죽이나 먹여라.

스님은 “부처에게 속았다고 욕을 바가지로 해야 화두가 제대로 된다”며 “천하제일의 선지식도 잡아먹을 수 있는 사자 새끼가 돼야 조금이라도 맛을 볼 수 있지, 착한 것만 갖고는 안된다”고 가르친다.

우리 시대의 큰스님 성수 대선사. ‘한국적 선문답’의 전형으로 칭송받는 성수 스님의 선법문집 <저 건너 산을 보라>가 출간됐다.

현대불교신문 기자 출신이며 현재 참선과 저술에 몰두하고 있는 김성우(본명 김재경) 씨가, 1978년. 발간된 성수 스님의 <불문보감> 선문답집에 해설을 붙인 것이다.

이 책의 구성은 1부 선문답, 2부 선법문, 3부 언론과의 1문1답, 우리시대의 진정한 대인 성수 대선사 구도기로 짜여져 있다.

성수 스님의 법문은 일반인들이 선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금기시해온 난해한 선문답의 해설을 통해 선문답이 수행과 동떨어진 동문서답(東問西答)이 아니라, 오히려 수행의 지름길

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스님의 선문답과 선화(禪話)는 중국 선종의 언어를 답습하지 않은 한국적인 선문답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어,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선(禪)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스님의 책에는 선에 대한 이야기 뿐 아니라 살아가는 지혜도 듬뿍 담겨있다.

스님은 이 책에서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정말 나 좋고 남도 좋고 다 좋다”며 “있는 복이라도 잘 관리하고 잘 보호해서 잘 가지고 써보십시오. 정말 사는 재미가 ‘오도독 오도독’ 난다”고 당부한다.

김성우씨는 “이 책의 선문답에 대한 해설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선 수행이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며 “물론 공안에 대한 파설을 통해 간화선 수행에 신심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유의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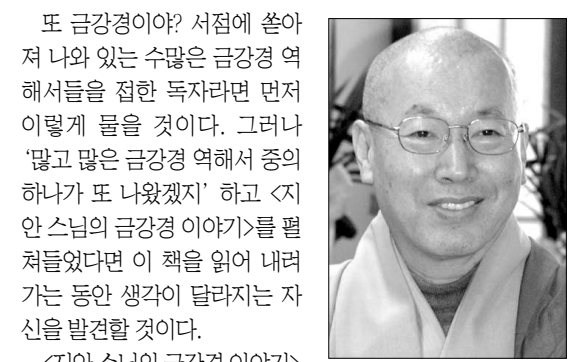


김 씨는 또 “이 책에서 제시하는 선의 요체는 간화선보다는 정통 조사선(禪師禪: 송대 간화선이 형성되기 이전 조사들의 활발한 선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며 “단박 깨닫는 기연을 이끌어주는 것이 조사선의 전통을 이은 성수 스님의 한국형 선문답의 특징이자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문(남자): 불법(佛法: 불교의 진리)의 대의가 궁금합니다.

답(성수 스님): 가지고 있는 법은 여 제하고 따로이 법을 묻느냐? 법을 알기 전에 자기 부족을 살필 줄 아는 이가 참다운 수행인이거나 자기 병을 진단하지 못하면 천불(千佛: 천분의 부처님)이 출세해도 불법을 알기는 어렵다. 화두나 들고 좌복(坐服: 방석)에 앉아 세월만 보내면 뒤에 받은 몸은 누구에게 책임을 지을 것인가



또 금강경이야? 서점에 쏟아져 나와 있는 수많은 금강경 역해서들을 집한 독자라면 먼저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그러나 ‘많고 많은 금강경 역해서 중의 하나가 또 나왔겠지’ 하고 <지안 스님의 금강경 이야기>를 펼쳐들었다면 이 책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생각이 달라지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지안 스님의 금강경 이야기>는 금강경을 그 어떤 경전보다 야기며 사랑한 지안 스님(사진)이 한사십이라도 더 금강경을 가까이 두고 독송함으로써 ‘아상’이 묶여 고를 받는 이들의 지견이 열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기울여 쓴 책이기 때문이다.

통도사 강원 강주, 조계종 교육원 역경위원장을 역임하고 조계종 승가대학원장으로 활동 중인 지안 스님이 풀어 쓴 이 책은 구마라습의 원문과 풀이, 지안 스님의 강의, 금강경과 관련된 설화들을 가려 뽑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30년 교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바친 지안 스님의 삶과 연륜이 통째로 녹아 있는 데다 금강경이 너무 좋아 10만 번 독송을 발원했을 정도로 금강경에 매료됐던 지안 스님이 후학들을 직접 지도하면서 틈틈이 정리한 원고들이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강경의 요의를 밝혀주고 있다. 이 책은 앞으로 스님들은 물론 재가자들을 위한 강의 교재로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금강경과 관계되는 설화를 중심으로 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강경 간경기’나 선화(禪話)에서 가려 뽑은 이야기들은 금강경의 이해를 돕고 금강경이 독자의 삶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여야 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들려주고 있다.

또 한 가지 <지안 스님의 금강경 이야기>에서 돋보이는 것은 부록이다. ‘법에 머무는 바 없이 마음으로 보시를 행하라’는 말씀을 들은 수보리가 일으키는 의식, 27가지인 천천(天親)의 27단의(斷疑)를 정리해 놓고 있어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그 의문에 대면하고 답을 찾아보도록 하고 있다. 금강경의 경문 뒤에 숨은 뜻을 찾아가며 독송하도록 하기 위한 지안 스님의 배려다.

또한 무착(無著)의 18주(住)와 미륵(彌勒) 80행(八十行)은 금강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마음을 어디에 주(住)하며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집합이 되고 있다. 특히 미륵 80행 송은 지안 스님이 처음으로 신수대장경에서 뽑아 해설한 것으로 그것만으로도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인도불교사> 등 10권 ‘올해의 불서’에

불출협, 출판사 추천 50종중 10권 뽑아... 12월 8일 시상식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원택, 이하 불출협)가 11월 15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 해 동안 출간된 불교서적 중 양서를 가려 뽑는 ‘올해의 불서 10’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10권의 불서는 <길 위의 삼국유사>(미래M&B) <인도 불교사>(시공사) <생명과과학의 선>(미토스) <인간학불교>(정우서적) <필수행일문>(조계종출판사) <소 찾는 아이>(세계잡) <부터로부터 배우는 자녀교육의 지혜>(운주사) <부터, 나를 흔들다>(산티) <불교, 이웃종교를 읽다>(현암사) <범종, 생명의 소리를 담은 장엄>(한길아트) 등이다.

‘올해의 불서 10’ 선정은 불출협이 좋은 불서를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저자·출판사에 활력을 줌으로써 불교출판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마련한 것.

불출협은 출판사가 추천한 50종을 선정한 뒤 출판기자·독자·출판사 편집장·불교학자·법사 등 120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들에게 추천서를 발송해 회소한 뒤 2차 후보로서 20종을 가려냈다.

최종 심사는 김호성(동국대 인도철학과) 고영섭(동국대 불교학과) 김재성(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가 20종의 도서를 10일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10권을 가린 것이다.

심사기준은 창작성, 기획력 및 편집, 불교 대중화에 대한 공헌도, 문장 서술 및 구성력을 봤다.



한편, 불출협은 12월 8일 오후 3시 대한출판문화협회 대강당에서 시상식 및 불출협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김원우 기자

올해 추천도서 선정 이유

<인도불교사>=학술적인 가치야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한국의 번역 풍토에서 양이나 질적으로 돋보인다.

<소 찾는 아이>=심우도를 텍스트로 하고 있으며, 그림이 부드럽고 유려할 뿐만 아니라 잔잔하게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길 위의 삼국유사>=이러한 흐름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사진과 아름다운 문장이 돋보이며 생생한 현장감이 느껴진다.

<범종, 생명의 소리를 담은 장엄>=우리 범종의 우수성에 대한 체계적 설명과 풍부한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불교, 이웃 종교를 읽다>=불교에 대한 대중 강의이지만 철저히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어져 있으면서, 또한 외부의 시각에 비친 불교사상이나 교리 등을 객관화시켰다.

<부터, 나를 흔들다>=각종 경전 속에서 부처님을 만나 자신의 삶과 세

계관이 바뀐 사람들(제자)의 이야기를 자신의 포교현장에서 사례를 결합하여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부터로부터 배우는 자녀교육의 지혜>=현재 초등학교 교사인 저자가 교육현장에서의 경험과 불교의 가르침을 결합하여,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올바르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생명과과학의 선>=사회적 이슈나 문제들에 대해 불교의 기본 사상과 교리에 입각한 관점을 제시했다.

<인간학 불교>=불교입문서들이 흔히 가지는, 기본적인 용어나 개념, 사건 등의 단순 나열이나 백화점식 서술이 아닌 기획부터 철저한 인문학의 관점에서 불교에 접근하고 있다.

<절 수행 입문>=간화선, 화두 일변도의 수행 풍토에서, 대중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절’도 하나의 수행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빙의 사전 제대로 알아!”

귀신에 관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의 시대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출생의 비밀 유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서울출판 Tel. 02-313-5047 Fax 02-393-9696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신수 비결” “이름 대사전”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역학 개인 지도

- 모집인원 : 3명
- 자격 : 제한없음
- 기간 : 12월 1일 (3개월 예정)
- 역학 및 작명 (숙식가능)

효 타 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